우암학원 창학 73주년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96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8월 8일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29명의 '반란'… 혼돈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149명·반대 136명 '가결'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야…민주당 안팎 내홍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릴 전망이다. 특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하는 등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나게 돼 민주당 안팎의 내홍도 불가피 해보인다.

또 이날 헌정사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국회는 역시 헌정사 처음으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다만, 찬반 및 기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번째다. 국무위원인 두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나온 것이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10월 중순 '첫 삽' ▶6면

북스 - '항생제를 만든 사람들' ▶14·15면

위기의 전남산단 - 장흥바이오식품산단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안세영·안산·전웅태 … 지역 선수들 뜨거운 도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내일 개막
한국, 금메달 50개·3위 목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1년을 더 기다려온 아시아스포츠 대제전이 시작된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일 열전의 막을 올린다. 지난해 열려야 했을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미뤄 진행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열리는 이번 대회는 중국 저장성 성도 항저우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10월 8일까지 진행되며, 40개 종목에서 48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이 전개된다.

39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최대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북한도 5년 만에 국제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다. 북한은 코로나19의 자국 유입을 막겠다며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받았다. 2022년 말까지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북한은 이번 대회를 통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5년 만에 국제 무대에 복귀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2024 파리 올림픽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하계 올림픽을 불과 10개월 남기고 대회가 열리는 만큼 미리 보는 올림픽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궁, 아티스틱 스위밍, 복싱, 브레이킹, 하키, 근대 5종, 요트, 테니스, 수구 등 9개 종목에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만큼 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아시안게임을 빛낼 '스타 선수'에도 시선이 쏠린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시청)과 부상에서 회복해 21일 '황선홍호'에 합류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단연 눈길 끄는 스타다. 최근에 막을 내린 2023 중국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단식 우승을 이룬 광주 출신 안세영과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비싼 티켓값을 자랑하는 종목인 e스포츠에 출전하는 '페이커' 이상혁은 AFP통신이 선정한 주목할 선수 8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안세영을 비롯해 도쿄 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양궁 안산(광주여대), 근대5종 첫 올림픽 메달을 장식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웅태(광주시청) 등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에서는 KIA 이의리·최지민·최원준과 함께 진흥고 출신 문동주(투수·한화), 광주일고 출신 최지훈(외야수)·순천 효천고 출신 박성한(내야수·이상 SSG)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에는 '금호고 듀오' 정호연(광주)과 엄원상(울산)이 있다. 두 선수는 19일 진행된 쿠웨이트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각각 도움과 득점을 기록하면서 9-0 대승을 이끌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